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20년 8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글로벌 철강기업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

-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전년비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분기 매출 급감이 실적 악화로 이어짐
- ArcelorMittal의 상반기 출하량은 전년비 23.1%, 일본제철의 출하량은 13.6%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
- 중국 철강사들은 경기 회복과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가격 상승 및 글로벌 철강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악화

◆ 중국 바오우그룹, 타이강그룹 흡수 합병

- 바오우(宝武)그룹이 중국 최대 국영 STS 기업인 타이강(太钢)그룹을 흡수합병하며, 1억톤급 철강사로 도약하는 동시에 STS 시장 영향력도 확대
- 바오우그룹은 칭산(青山) 그룹에 이어 중국 내 STS 2번째로 천만톤 이상의 STS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칭산그룹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게 됨

◆ Eurofer, 3분기 유럽 철강수요 17.2% 감소 전망

- Eurofer는 '20.1분기 유럽 철강 명목소비가 전년비 12% 감소했으며, 2분기를 저점(▲31.8%)으로 서서히 회복*되겠지만 회복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예상

* ('20.1Q) ▲12.0% → (2Q) ▲31.8% → (3Q)▲17.2% → (4Q)▲4.0%

- 수요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토목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의 회복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